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 적정인력 충원! 비정규직 해결! 의료민영화 반대! 보호자 없는 병원! 건강보험 강화!



교섭속보 9호

2017년 7월 7일 금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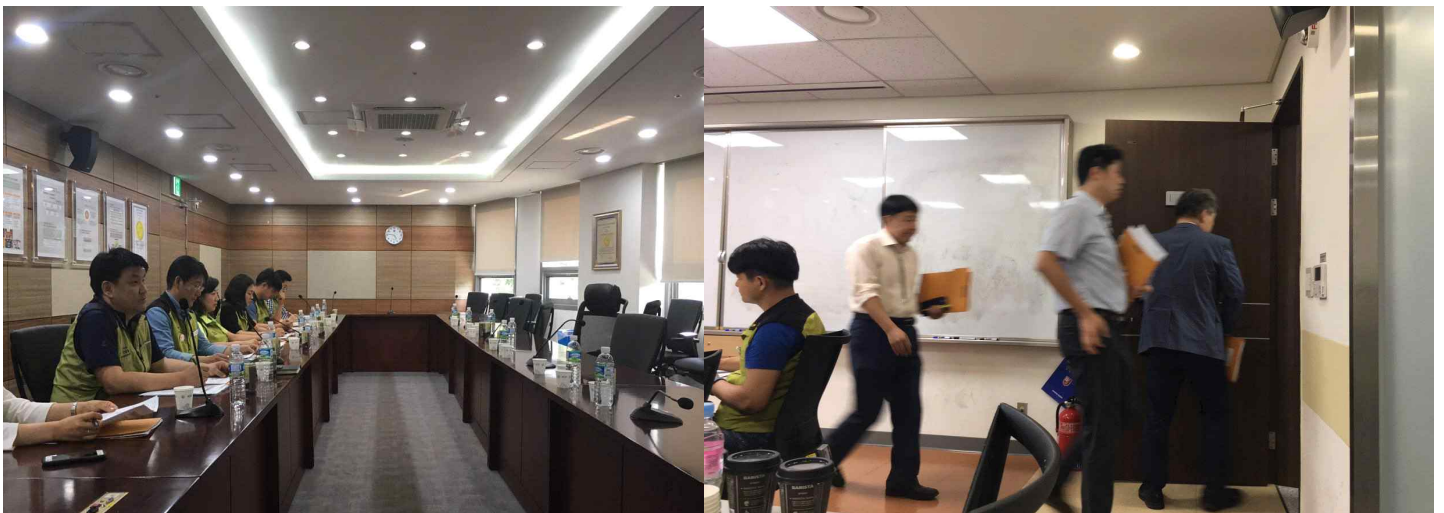
<http://korea.nodong.org>

발행/고대의료원지부

발행인/홍 세 나



일류 고대의료원의 일류 노사관계 보여 달랬더니 또 “일방 퇴장!!” 3차에 이어, 5차, 6차 벌써 세 차례!!



<위> 6차 산별현장교섭 <아래왼쪽> 3차 산별현장교섭 <아래 오른쪽> 5차 산별현장교섭

7월 6일 어제 진행된 6차 산별현장교섭은 의료원의 일방 퇴장으로 교섭 시작 10분이 채 안되어 종료되었다. 노동조합의 인력충원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안을 발제하자마자 산별 요구안은 듣지 않겠다며 퇴장한 것이다. 사측은 6차 교섭 중 무려 3차례나 일방 퇴장을 하는 교섭태도를 반복하고 있다.

명퇴, 비정규직 문제 해결해 달라. / 일류 교섭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새로운 교섭위원으로 참가한 최소연 조합원은 인사말로 “10년 동안 일해 온 고대 병원이 1조 클럽이 되었다고 들었다. 일류 고대병원인 만큼 오늘은 일류 노사관계를 볼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이어 서정완 조합원은 “현장에서는 명퇴자리와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교섭을 통해 문제가 잘 풀렸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그러나 교섭을 지켜 본 조합원들은 “하루 종일 교섭을 위해 많은 준비를 했는데 너무 허무하다.”, “얘기는 들었지만 정말 퇴장할 줄은 몰랐다.” 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조기교섭 요청, 2016년 합의사항의 조속한 이행 위한 것.

인력충원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안 정부가 주도하는 일자리 위원회를 통해 고대병원의 인력,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는 의미.

노사 대표위원 인사에서 홍세나 지부장은 “정밀 의료사업단 선정을 축하한다. 의료원의 노고를 이 기회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다. 조기 교섭을 요청한 것은 임금을 많이 올려달라는 요구가 아니다. 작년 교섭이 마무리 되지 않아 풀어야 할 문제들을 교섭에서 풀자는 것이다. 또한 인력과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요구를 발제하려는 것은 현장의 어려움을 담은 요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용을 노사가 함께 공유하자는 의미다. 사측이 주장하는 산별요구안이라는 의미는 보건의료노조차원으로 현장의 요구를 확정한 것 뿐이다. 지부의 요구안이다. 한편 정부는 국가 일자리 위원회를 통해 노사정이 함께하는 회의를 준비한다고 들었다. 그리고 노동부는 8월 17일 비정규직 정규직화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노사가 함께하는 자리에 참석해 사립대의 어려움과 고민을 얘기하면서 노사가 인력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보자.” 고 말했다. 다음은 우리지부가 논의하고자 하는 인력충원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안이다.

고대의료원지부 2017년 산별현장교섭 인력충원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안(지부공동요구안)

- 1. 병원인력 확충** - 병원은 환자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주5일 주40시간제 시행, 자유로운 휴가 사용 등에 필요한 적정인력을 근무조당 정원으로 책정하고, 이를 준수한다.
-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시행을 통한 일자리 확충** - 병원은 2020년까지 전 병동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으로 운영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은 각 의료기관별 노사합의를 통해 마련한다.
- 3.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 노사 동수의 노동시간 실태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017년 내에 시간외근무 실태, 인수인계 시간 실태, 휴게시간과 식사시간 실태, 인력부족으로 인한 휴일근로 실태, 이직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상시적 결원인력 현황, 야간근무 실태, 의료기관평가인증 당시와 평상시의 인력과 환자수 비교 실태, 토요일근무 실태, PA 실태 등을 공동 조사하며 조사항목은 노사합의로 정한다.
- 4. 이직률 낮추기** - 노사는 이직요인을 노사 공동으로 조사하고,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 5. 의료법 준수** - 병원은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PA를 더 이상 확대하지 않으며, 2017년 말까지 PA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 공동의 대안을 마련한다.
- 6. 비정규직 없는 병원 만들기** - 병원은 더 이상 비정규직을 확대하지 않으며, 전체 직원 대비 비정규직 비율을 2018년까지 20% 이하로, 2020년까지 10%로 이하로 줄인다. 비정규직 비율 산정시 출산휴가 대체자, 육아휴직 대체자, 병가 대체자 등은 제외하며, 특정 부서나 직종의 비정규직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직종별 비정규직 상한제를 마련한다.
- 7. 병원의 사회적 책임 실현** - 노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환자만족-직원만족-국민만족 좋은 병원 만들기 일환으로 <보건의료산업 ISO26000>의 26개 이슈, 52개 기준을 성실하게 실행할 것을 약속하는 노사 공동협약에 서명하고, 이를 준수한다.
- 8. 산별 노사관계 발전** - 병원은 산별중앙교섭, 특성교섭, 현장교섭 등을 포함하여 노조가 교섭을 요청할 시 성실하게 참가한다.